

# 21세기 디지털 시대, 박물관에서 만나는 '오래된 미래'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어느 인류학자의 박물관 이야기

최협 지음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 영국박물관, 멕시코 국립인류박물관,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싱가포르 예술과학박물관...

세계적으로 알려진 박물관들이다. 나름의 의미와 전통,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다. 사실 고전적인 의미의 박물관은 유물을 수집해 연구, 전시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실용적이거나 단명명료한 정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박물관은 이 같은 범주를 뛰어넘는다. 하나의 플랫폼처럼 도시와 지역, 경제와 관광, 교육과 기술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좀 더 시야를 넓히면 박물관은 매우 복합적인 공간이라는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한 인류학자가 세계의 다양한 박물관을 다니며 찾아낸 흥미로운 이야기가 책으로 발간됐다. 최협 전 전남대 인류학과 교수가 펴낸 '어느 인류학자의 박물관 이야기'는 박물관마다 숨어있는 다채로운 스토리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 켈리포니아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그동안 '부시맨과 레비스트로스', '다민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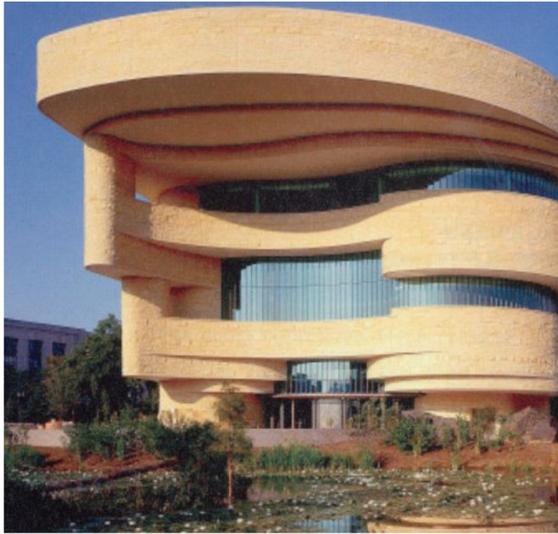
회, 소수민족, 코리안 아메리칸' 등을 펴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저자는 대학 시절 인류학을 전공하며 박물관을 '제집처럼' 방문했다. 이후 미국 유학, 교수 재직 시절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박물관을 찾았다. 그동안 찍어둔 사진 자료와 희미해져 가는 기억을 되살려 이번 책을 완성했다.

미국 소미스소니언 산하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매년 600만 명 이상이 찾는다. "인류학도에게 최고의 학습현장"으로, 특정 사회의 문화를 보여주는 민속품들이 주를 이룬다. 인류학 외에도 식물학, 곤충학, 광물학, 고생물학, 해양학 등 다양한 부서가 있고 소장품만 1억 4000만 점이 넘는다.

저자에 따르면 이곳에는 19세기 말 한국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의 기증품과 학예사들이 수집한 물건들이 적지 않다. 한국 유물은 고무신, 의복, 대바구니 등 4000여 점에 이른다. 수장고에 보관된 유물은 수집한 사람의 이름을 따 분류돼 있다.

아메리칸 인디언박물관은 원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건립됐다. 과거 전통적 박물관에서는 인디언 유물이 백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인디언박물관은 "타자화, 탈 맥락화, 재구성, 재발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취지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제인스 루나의 설치작품 "The Artifact Piece". "인디언을 마치 생명이 없는 유물처럼 진열대에 놓아 전시함으로써" 기존 박물관 관행에 문제를 제



소소자의 목소리를 담은 미국 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

기한다. '영국박물관에는 영국이 없다, 그 대신 세계가 있다'는 말이 있다. 영국박물관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거론된다.

하나는 식민주의와 문화제 약탈이라는 관점, 또 하나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도서관조직'이 그것이다. 전자에 대한 쟁점은 탈식민주의 인류학이나 박물관학에서 충분히 다뤄졌다.

그러나 후자인 도서관조직 부분은, 영국 역사와

세계사에 빛나는 인사들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찰스 다윈, 찰스 디킨스, 토마스 하디, 버지니아 울프, 오스카 와일드 등이 도서관을 드나들었다. 이용자 기록 카드에는 레나, 간디, 버나드 쇼, T.S. 엘리엇 등이 포함돼 있다.

터키 이스탄불고고학박물관은, 각기 콘텐츠를 달리하는 고고학박물관이 여러 지역에 산재하는 형태다. 다양성과 색다른 접근 방식은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콘텐츠에서 기인한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스탄불을 '인류문명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부른다.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비잔틴,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땅이라는 의미다.

이밖에 기억의 정치와 사회변화를 엿볼 수 있는 미국 홀로코스트기념박물관, 문화적 다양성을 품은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싱가포르 예술과학박물관도 만날 수 있다.

<민속원·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정호승 지음

지난 1990-2000년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사랑받는 스티디셀러 시집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지금까지 20만부가 판매된 이 작품집은 실존적 사랑의 고백록에 다름 아니다. 시인 정호승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킨 시집으로 시대를 보듬는 따뜻함이 느껴진다.

이번에 출간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는 초판 출간 무렵 쓴 미발표작 21편과 '어른이 읽는 동서'로 선보였던 시집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에서 선별한 4편을 더해 새로운 모습으로 엮었다.

정호승 시인의 시의 미덕은 삶에 대한 긍정이다. 슬픔과 그리움이라는 정조 속에서도 비극적이거나 감상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독자를 자기 성찰로 이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위 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눈물'은 시인의 연민과 사랑에 드리워진 시이다. 그의 슬픔은 단순한 감상이 아닌 연민을 넘어선 자기 성찰로 다가온다.

시인은 "이 시집에는 나의 대표성을 지닌 시들이 실려 있다"고 말한 것처럼 작품집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는 단순한 시 구절, 시 제목을 넘어 많은 이들이 외우고 읊는 명문이 되었다. "시인은 늙어가도 시와 시집은 늙지 않는다"는 시인의 말처럼 눈물과 아울러 사랑의 마음을 환기한다. 그 따스한 마음은 시대를 넘어 오늘의 독자들에게까지 전한다.



<창비·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실학의 숲에서 오늘을 보다

김태희 지음

실학, 역사, 정치, 공동체, 세계, 여행이라는 여섯 가지의 주제로 우리 사회 전반을 들여다본 책 '실학의 숲에서 오늘을 보다'는 삶의 다양한 면을 들여다본 결과물이다. 다산연구소 소장 김태희 박사가 저자다.

조선 후기 정치사상을 공부하는 저자의 주요한 주제가 바로 실학사상이다. 그는 자신을 '실학'을 통해 깊이 배우려 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학을 '실학하려는' 사람"이다.

모두 6가지의 주제는 실학의 지향을 드러낸다. 저자는 정신과 물질의 조화 등에 관해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고민과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를 관통하는 주제는 실사구시, 법고창신, 도기창신 등이다.

또한 저자가 오늘을 이해하는 통로는 역사다.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기에 좋은 도구"로 역사만한 것이 없다는 견해에서 드러난다. 역사와 아울러 저자가 직시하는 분야는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들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갈등이 존재하며 이를 관리하는 것이 정치의 일이라는 의미다.

우리의 삶은 세계와 연결돼 있기에 공동선을 위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구성원들 사이의 통합을 말하는데, 물론 통합이 구성원들의 완전한 일치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통일이니 단결이니 하는 말이 소수의 권력 독점을 은폐하고 잠재적 반대파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 가짜 통합이다"며 "완전한 통일성의 비전은 다분히 환상이다. 그러한 비전을 강요한다면 이미 반발과 갈등이 예정된 셈이다"고 밝혔다.



<빈빈책방·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1·2

송희구 지음

삼겹살 회식을 사랑하는 오십대 쎄대 김 부장, 투자와 회사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송 과장, 유튜버 분위기에메이커 정 대리, 성실하고 고민 많은 권 사원까지 어느 회사, 어느 사무실에 있을 법한 '그들', 아니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1·2'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11년차 과장인 송희구가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개인 블로그와 부동산 카페에 쓴 글을 엮은 것이다. 그가 쓴 글은 30일 만에 개인 블로그 조회수는 200만, 커뮤니티 조회수는 1000만을 기록하며 세간의 주목과 관심을 모았다.

책은 '1 김 부장 편'과 '2 정 대리·권 사원 편'으로 나뉜다. 1편은 대기업 명함을 무슨 대단한 배지인 양 거들먹거리고, 직급을 계급으로 여기며 쎄대질을 하다가 큰 위기를 맞는 김 부장의 이야기를 다룬다. 2편은 김 부장 팀의 일원인 정 대리와 권 사원이 겪는 직장생활의 애환은 물론, 결혼과 관련한 고민들까지 담았다. 율리우스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사는 정 대리, 당찬 포부를 안고 회사에 입사했으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갈등하는 권 사원의 미생 스토리가 그려진다.

올 가을에는 3권도 만날 수 있다. 3권은 투자의 고수 '송 과장' 편으로 사원부터 전무까지 모두의 부동산 멘토인 송 과장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펼쳐진다.

저자는 본인의 미래 모습일지도 모를 김 부장과 과거 모습인 정 대리, 권 사원을 통해 삶의 존엄성, 직장의 의미, 경제적 안정, 내면의 목소리,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에 대해 들려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삼독·각 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 포도에서 만남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